



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	<‘옛’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>					
사업개요	인천 미추홀구 학익동, 용현동 일대는 염전-공업지대-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. 이 중 1960-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, 인근 공장의 관계자, 지역주민, 소상공인,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.					
구술자명	홍규선	성 별	남	출생연도	1938년	
면담자	표기자	소 속	미추홀시민기록단	감독자		
면담장소	학산문화원 2동아리실		면담지원	홍난희		
면담 일시	2025년 8 월 1 일		회 차	1	시 간	1시간 50 분 초
자료번호						
구술 개요	옛 동양화학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던 시절 학익공장에서 주 업무는 노무, 자산, 인사, 마을주민과의 관계 등 전반적인 공장 총괄업무를 맡으셨다. 그 중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,공존에 여러모로 기여하신 바가 크다.					
주요 색인어	소다회, 경제개발5개년계획, 열병합발전소,염화칼슘, 구내식당, 이회림 회장, 노사, 지역사회.					
구술 상세목록 내용				시간	관련 파일(비공개)	
1. 구술 동기				00:00:00		
- 인천 발전사를 기억하고 기록에 긍정적 참여				~00:02:53		
2. 성장과정과 동양화학 입사 계기				00:02:54 ~00:18:51		
- 한의원 하시던 아버지한테 가면 짜장면 사주시던 기억. - 대학졸업 후 보령탄광에서 일하다 이회림회장의 주선으로 학익동 동양화학으로 이동함.						
3. 동양화학 경영 일선에서				(00:18:52~00:38:34)		
- 7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생산품목으로 소다회가 결정되면서 동양화학에서 생산하게 됨. - 동양화학은 기초화학의 선구자 - 공장 설비 들어오던 초기에 소성로 설비장치로 ‘하소로’를 인천항 구에서 옮겨오던 어려운 작업을 선광공사에서 맡아서 함. - 많은 전력을 필요로하는 회사이다보니 열병합발전소 세워서 잉여 전력은 초기에 한전에 유료 공급 함. - 효자상품으로 염화칼슘, 옥시제품 등 - 소다회공장 유치하기 위해 학익동 앞 바다 10만평을 매립하게 됨. - 인근 마을과 상생하기 위해 마을 주변 도로 포장, 노인정 건립, 돼						



지고기 쿠폰 나눔. 주민 쌀가게 거래. 주변 학교행사 참여 등			
4.동양화학의 시련과 극복		(00:19:05~00:28:45)	
- 대학생 위장 취업으로 노사관계 어려움 겪음. - 소다회 재고량이 많아 금전 회전이 안돼 명절 때 급여 관계로 어려운 적 있었음.			
5.이회림 회장에 대한 기억		(00:28:46~00:36:42)	
- 공장 노동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, 공장 고사 지낼 때에는 부인과 직접 집에서 고사떡과 돼지머리를 삶아오셔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정성을 보이셨다. - 사내 복지차원에서 새인천 풀장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레저공간 마련해줌. - 송암미술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인천시에 기증함.			
6.동양화학과 지역 사회의 관계		(00:36:43~1:12:42)	
- 2002 월드컵 기념배지 만들어 인천시에 회사함. - 동양화학 뒷마을 도로 포장. - 인천 상공회의소가 주는 상공대상 사회복리 부문 수상 - 이웃 주민들에게 선물 나눔. - 송도고등학교 설립. 이사장 역임.			
공개여부	☐ 전체 공개 ☐ 전체 비공개 ☒ 부분 공개		
활용동의	☒ 동의함 ☐ 동의 안 함 ☐ 조건부 동의		
특이사항			